

25년 6월 목회일정

8일(주일)	초빙설교(김성욱목사-몽골선교사/선교보고) 성령강림주일
15일(주일)	성찬가족심방(1-김용대/2-김영민/3-최진언)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김우곤강도사)
29일(주일)	문화주일-성경으로 영화읽기(2/4분기특별헌금) 초빙설교(이광원강도사-본교회)
2일(월)	동래시찰회(십자가교회당)
13-15일	노회선교대회(온천교회당)
16-19일	시찰교역자 모임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김성욱선교사)	
3. 성령강림주일 / 오늘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을 파송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 초빙설교 / 오늘 오후예배 김성욱 목사(몽골선교사) 예배 후에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5. 성찬가족심방 / 다음 주일 오후예배 시에 있습니다. (1조-김용대가정 2조-김영민가정 3조-최진언성도)	
6. 목사동정 / 13일 12:30 노회소속 선교사 모임(외식일변가)	
7. 노회선교대회 / 13(금)~15일(주일) 온천교회당 등	
8.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처음오신 분 / 김윤석성도(실로암-한국개혁장로회,하양)	
[문화주일 : 성경으로 영화읽기] · 일시 및 주최 - 29일(주일) 오후예배 후, 청년회 · 감상 영화 - 청설(한국 리메이크)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감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6월	07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김용대	김명순
안 내	이광원	김민혁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종)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국 성 연 화 교 회 (최 지 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6.08.(제29-23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 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예배에로의부름 ↑		시66:1-2(교송) 인도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회 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 배 찬 송 ↑		시편96편(2-3)
	* 십 계 명 봉 독 ↓		신 5장(전계명/교독)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7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 사 찬 송 ↑		찬송57장(2a-2b)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엡 4:1-6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04편(1-4)	
설 교 ↓		설교자	
교회를 위하여 오신 성령님(1)		찬송가643장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세 레 식 ↓ 필요시 시행		성례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5장(2a-b) 구제헌금 분별 분잔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봉 사 사 역	
* 강 복 선 언 ↓		찬송38장	
		폐 회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최성림 목사 김성욱 목사
교회소식			
개 회			
* 예배예로의부름 ↑	계19:6-7(교송)		
인도자 :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회 중 :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 축 복 의 인 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시편111편(2-3)		
신앙고백			
* 신 앙 고 백 ↓	니케아신경		
* 감 사 찬 송 ↑	찬송 1장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눅 1:1-4		
교 리 문 답 교 독 ↓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22장		
설 교 ↓	설교자		
증인과 계시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37장(1a-2b)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주일설교를 기억하며(교회를 위하여 오신 성령님(1))
1.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로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도록
2.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부르심을 함당하게 이뤄가기를
3.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고백이 교회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김성욱선교사(몽골)
1. 섬기고 있는 생명의길교회가 삼위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되게
2. 현지인사역자에게 맡긴 몽골장로신학교가 신실한 사역자를 양육하고 몽골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3. 개혁주의신학사적을 몽골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역(58권)을 통해 몽골에 개혁주의교회가 굳게서게
4. 격주마다 모이는 개혁주의목회자 성경연구모임(두 그룹)을 통해 개혁신앙의 실질을 이루어가도록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목사)
1. 노동과 생활풍속 문화의 차이와 언어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2.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이나 내국인 동료직원들의 차별없는 대우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3. 이교도인 근로자들이 신앙의 건덕을 지닌 내국인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
1. 주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공의로운 대통령 되게
2. 무너진 국정을 순탄하게 잘 세워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게

아디아포라(Adiaphora;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자세(2)
최성림 목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배워온 것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제사랑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보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다. 왜 우리가 형제의 양심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형제를 곤란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나 명한 것에 대하여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청중하라고 권면하거나 때론 강하게 면책하며,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원리가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자유나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습관이나 관습의 문제를 '자신의 상식이나 관습과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정말 주의해야 한다. 주님은 바로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를 주님의 말씀이 아닌, 각 사람의 양심에 맡겨진 자유하는 행동을 진리가 아닌 내 소견과 내 판단으로 정죄한다면 이 얼마나 불경한 죄인가! 한 개인의 취향이나 가정의 풍습에 따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절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문제가, 또 어느 정치인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어찌 형제사랑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 일이란 말인가?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존된 것이다. 만약 나의 양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 판단받는 것이 싫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양심에 달린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고, 고상한 말, 거룩한 말을 많이 외칠지라도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거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문제, 곧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자유에 달린 문제를 인하여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 인지를 주님은 심판의 날, 그 심판의 권세를 남용한 문제로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롬14:10)

교회 안에 진리의 문제가 아닌 관습, 혹은 습관, 혹은 문화적 환경이나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디아포라, 곧 양심의 문제를 인하여 나의 입장, 나의 생각으로 형제나 이웃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죄를 범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번 주간 암송(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6월 8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600장
성경봉독	엡 4:1-6
설 교	교회를 위하여 오신 성령님(1)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강림일은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 하나 됨을 지키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란,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부르심도 이 일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상호 용납’과 같은 성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열된 성품은 ‘성령의 열매(갈 5장)’의 목록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주신 성품이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성도에게 있음으로써 교회를 하나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겸손”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비굴하고 빌빌대는 모습을 겸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겸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겸손은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겸손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귀한 성품이 됩니다.

“온유”는 강함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덕목입니다. 성도의 힘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기에 자신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배려합니다. 이 온유는 겸손과 함께 사용되어 의미가 더욱 강화됩니다.

“오래 참음”과 “상호 용납”은 “사랑” 안에서 이뤄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고전 13:4), 용납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셨습니다(롬 2:4).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형제성원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용납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의 교회로 자라가는 일에 힘써 지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는 가장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낼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써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를 “힘써 지키”는 것 또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일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성령님을 의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하나 됨의 근거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심”에서 기인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를 강조합니다. 성령도, 주님도,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본문은 여타 다른 삼위일체에 대한 소개와는 다른 순서를 보여줍니다.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로 나열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순서상 성부께서 제1위이시지만, 여기서는 점차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주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에서 나오고, 이를 모두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점차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삼위께서 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몸 된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은 주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이어지는 일입니다(2:21-22). 곧 교회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부르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욱 소망해야 할 것은 이미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지만 더욱 온전한 교회로서 자라가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교회에서도 이뤄지도록 이 땅의 교회에 하늘의 교회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 교회의 도안을 그리며 땅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는 분열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분열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삼위께서 한 분이심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삼위일체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교회만이 ‘하나의 교회’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교회를 찢으려 한다면, 그건 두 분일 수 없는 하나님을 찢으려고 하는 망령된 행동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교회의 일치를 찢으려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면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과 선물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들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다양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그분을 닮은 성품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힘써 지켜가길 바랍니다. 아멘.